

끝 모르는 물가상승

식품값 6개월째 고공행진...3월 소비자물가 전년비 2.2% ↑
도시가스 등 연료비도 올라 생활물가 상승률 5년래 최고

계란, 닭고기 등 생활물가 상승세가 6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계란, 닭고기, 무, 양파, 깐마늘 등 서민들의 식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농축산물의 가격이 수개월째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난달 생활물가 상승률은 5년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던 계란 평균 소매가(30개들이 특란 기준)는 지난달 중순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하더니 5일 7509원까지 뛰었다.

이는 한 달 전 가격 7314원보다 200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며, 1년 전 가격인 5202원보다는 2000원 이상 급등한 것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여파로 급등한 닭고기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육계 생계 1kg 시세는 지난 3월 기준 1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원보다 50%나 올랐



다. 육계 생계 시세는 3월 초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200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닭농가에서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1500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하면 여전히 비싸다. 육계 가격의 공공행진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발생 4개월여가 지나도록 종식되지 않은 AI의 영향으로 병아리 입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채소도 한번 오른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aT 집계 기준으로 무 1개 가격은 2124원으로 전년(1321원)보다 60.8%나 비싸다. 배추도 1포기에 3918원으로 전년(3101원)보다 26.3% 더 주고 사야 한다.

양파 1kg 가격은 2623원으로 전년(1967원)보다 33.4% 높고, 깐마늘 1kg 가격도 9857원으로 전년(7735원)보다 27.4%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당근, 양배추, 대파 등의 가격도 전년보다 53~77%나 올라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2%나 오르며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2% 상승했으며, 농·축·수산물 물가는 물론 도시가스 등 연료비 가격도 오르면서 생활물가 상승률 역시 5년2개월 만에 가장 컸다.

○양광기자 kroh@연합뉴스

당근·양배추·대파
평년비 최대 77% ↑

무 1개 2124원
평년비 61% ↑

생계 1마리 1500원
1년새 50% ↑

양파 1kg 2623원
평년비 33% ↑

계란 1판 7509원
1년새 27% ↑

깐마늘 1kg 9857원
평년비 최대 27%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52.75 (-8.10) ↑ 금리 (국고채 3년) 1.68% (+0.03)

↑ 코스닥 630.46 (+0.29) ↑ 환율 (USD) 1133.20원 (+8.80)

국세청 올 세무조사 줄인다

영세·중소 납세자 영업 독려...성실 수정신고자 사후검증 제외

납세자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보다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4일 2017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 1만7000건보다 줄이고 사후검증은 2만2000건 수준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때문에 영세·중소 납세자들의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를 축소하고 영세납세자나 성실 수정신고자는 사후검증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납세협력비용은 2007년, 2011년에 이어 올해 6년 만에 증정하기로 했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하

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뜻한다.

국세청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납세협력비용 감축 노력을 평가하고 체감도 높은 감축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을 차단하기 위해선 연구개발비를 신실하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현장 수색, 신속한 동산 압류·매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성실납세를 위해선 납세자를 위한 사전안내 자료, 맞춤형 절세 팁을 제공하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상속·증여 재산 사전평가 서비스를 새롭게 개통한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몽골 간 전남 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묵)는 6일 무안군 해지면 무안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전남쌀의 올 첫 몽골 수출을 위한 축하식을 했다. 최근 '중국 의 사드' 관련 무역 보복조치 등 쌀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행사였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금호타이어 6년 연속 레드닷 디자인상

금호타이어가 국내 타이어업계에서 처음으로 6년 연속 레드닷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6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신제품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용 타이어 '크루젠(CRUGEN) HP71'이 제품 디자인 부문 본상(Winner)을 받았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2012년 이후 해마다 레드닷 디자인상을 수상하게 됐다. 레드닷 디자인상은 iF 디자인상, IDEA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며 디자인의 혁신성과 기능성 등을 평가해 매년 수상작을 발표한다. 올해는 제품 디자인 부문에



전세계 57개국에서 5천214개 제품이 출품됐다. '크루젠 HP71'은 부드러운 주행성능과 정숙성을 강화한 고성능 프리미엄 타이어이다. 차별화된 소재와 차세대 컴파운드(고무화합물)를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마모 성능 등을 20% 이상 끌어올렸다. /김대성기자 bigkim@

전남 쌀 첫 몽골 수출

무안 황토랑 등 8t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묵)는 6일 무안군 해지면 무안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전남쌀의 올 첫 몽골 수출을 위한 축하식을 했다.

최근 '중국의 사드' 관련 무역 보복조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쌀 수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몽골의 쌀 수출은 수출처를 다변화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번 수출은 무안군농협쌀공동사업이 수출대행 업체인 (주)새벽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사됐으며 1차 물량은 대표브랜드 '황토랑' 등 8t이 선적되며 향후 수출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특히 무안군 농협쌀공동사업의 '황토랑' 브랜드 쌀은 전국 고품질 쌀에 수차례 선정된 전남 대표 브랜드로 전남 쌀의 우수성을 몽골에 알리는 동시에 몽골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흥묵 전남농협 본부장은 이날 축하식에서 "쌀 수출 확대는 물론 전남농산물 전체에 대한 수출처 개발을 통해 수출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양광기자 kroh@kwangju.co.kr

삼성 'QLED TV' 독일서 극찬

전문 평가지 창간 이래 최고점

삼성전자가 새로 출시한 프리미엄 TV인 'QLED TV'가 해외의 전문 리뷰 매체들로부터 잇따라 호평을 받고 있다.

6일 삼성전자가 따르면 독일의 영상·음향기기 전문 평가지 '비디오(Video)' 5월 호는 삼성의 QLED TV Q9에 대해 1005점 만점에 920점의 점수를 매겼다.

이는 비디오지가 창간 이래 평가한 제품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이다.

이에 앞서 비디오지는 4월호에서 LG전자의 프리미엄 TV인 'OLED TV W7'에

대해 당시로는 사상 최고점인 912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QLED TV가 이를 경신하며 최고점을 획득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TV가 나란히 이 매체로부터 역대 1, 2위의 점수를 받았다.

비디오지는 또 QLED에 대해 '레퍼런스'와 '이노베이션', '하이라이트' 등 3개의 평가등급 로고를 동시에 수여했다. 한 제품이 이 세 가지 로고를 한꺼번에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미세먼지 걱정에 의류건조기 열풍

세탁기 3대 팔릴때 1대 팔 판매...올 60만대 예상

의류건조기 '열풍'이 심상치 않다. 젖은 빨래를 쉽고 빠르게 말려주는 가전제품인 의류건조기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기 시작하더니 올해 초부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국내 의류건조기 시장 규모는 올해 50만~60만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세탁기 시장 규모가 연간 150만대를 넘어선다면 세탁기 3대가 팔릴 때 건조기도 1대씩 팔리는 셈이다. 이는 작년 10만대에 비해

5~6배에 이르는 시장 규모다. 건조기 가격은 가스식이 80만~90만원대, 전기식은 100만원대 초반으로 저렴한 편은 아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심화, 주거방식 변화로 건조기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최근 추상복합·발코니 확장 등으로 밖에서 옷을 말리기 어려워졌고 미세먼지 걱정까지 더해져 위생적으로 말 수 있는 건조기에 관심이 많아졌다. 빨래를 일일이 털고 널어 말리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 /연합뉴스

상가 건물 매매 경매 / 투자 전문 | 010-7384-7800 010-6670-9800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강력추천

■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 ◆ 시세 1억5천만
매가 1억1천만(용2천)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45평)

-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용5천)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갈끔)
매가 2억3천
-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연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광양 상아 아파트 매매
15평 - 12층 (전망 최고)
광양시청 / 광양산업단지 5분
매가 3천만

평택 전문

토지 (경매, 건설개발) 하실분 모집

① 전원주택토지 투자자 모집

송탄 터미널 5분
총 1,700평
전망 최고 / 전원주택 강력 추천!!

(시 세) - 평당 200만
(선착순) → 평당 150만

② 개발 부지(271평) 코너자리

송탄역 5분 - 송탄 터미널 1분
위치최고 / 분양 최고

▶ 매가 33억
개발시 순수익 50억!!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를권추천

■ 동구 금남로 5가 (8층중 4층 상가) 토 53평, 건 340평
롯데백화점 옆
광주 가장 큰광수, 가장 저렴한 가격
▶ 감정가 8억 → 최저가 1억8천

■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첨단지구 쌍암공원 1분.
총 료 28개 (월수익 3,000만 예상)
보 2억 월 1천만 (임대가능)
▶ 감정가 45억 → 최저가 31억

■ 광산구 하남 (7층중 4층 상가) 토 36평, 건 95평
하남 홈플러스 인근, 6차선 대로변 점
▶ 감정가 7억7천 → 최저가 3억4천

■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86평, 건 340평
1층상가 2층~5층 료 총 33개
월수익 1,000만 예상 / 문헌역 1분
▶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8천

■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1층) 토 21평, 건 34평
상무역 1분, 상무지구 최고 중심가
▶ 감정가 16억 → 최저가 7억2천